

# 農水産部를 農畜水産部로

국회농수산분과위원장 李範俊 의원



장기적인 안목에서 볼때 국가의 안정적인 발전은 그 나라의 국민경제의 능력에 의해 평가되며 또 국민경제의 기반은 국민 전체에 안정된 식량을 공급할 책임이 있는 농업·축산업·어업 종사자들에 의해 좌우된다.

분지는 지난 6월 23일 동물약품협회 부회장이며 태우동물약품 대표인 양승철사장의 주선으로 출범한지 3개월이 되는 제 11대 국회를 방문, 전체 농·어민의 권리와 의무를 대변할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는 국회 농수

산위원회 위원장 李範俊 의원을 찾았다.

식량문제에 관한 기본적 문제에 대한 질문에 대해 「80년대에 들어오면서 세계적으로 불안의 요소가 매우 많아 무력충돌에 의한 분쟁이 예고되고 있는 이때 경제정책중 식량정책에 대한 기본사고가 변경되어야 한다」고 견제하는 李 위원장은 전세계적으로 중요한 자원인 석유 못지 않게 식량 또한 제 2의 무기가 될 수 있는만큼 그러한 기조 밑에서 정책의 편중이 해소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한다.

최근 경제정책 입안자들의 발상은 비교우위경제론에 근거를 두고 있어 농업경제를 순수이론 세계에서 도외시키고 있으며 일부 극단적인 학자는 「농업, 축산업, 수산업은 모두 불필요한 투자이며 적국민이 공업분야에 힘을 합쳐야 국가경제의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극단론도 내세우고 있는데 이러한 이론은 경제적 기반이 튼튼하게 구축되어 있는 국가에서는 가능할지 모르나 우리의 현실에 비추어 보면 터무니 없는 발상에 지나지 않는다고 일축하며 공산주의자들도 외국에 식생활을 의존하는 예는 찾아볼 수 없다고 말한다.

세계적인 경제학자 슐츠박사에 의하면 「저개발국에서 전신효과로 공업에 편중된 경제정책을 실시하다가 모두 실패를 자초한다」는 말과 같이 농업을 확고히 하고 나갈때 실패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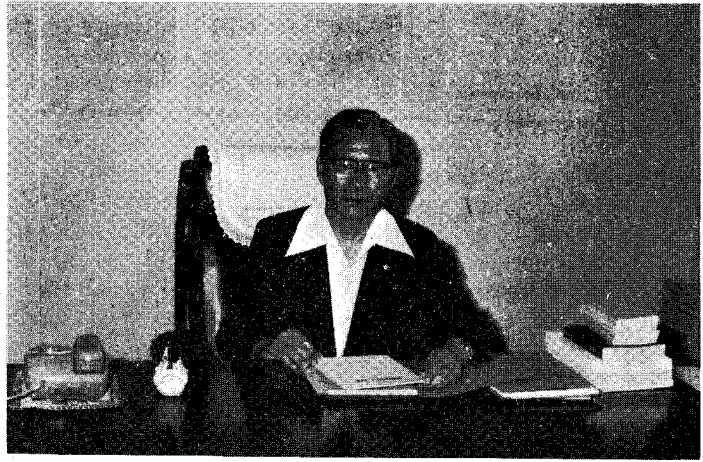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에 언급 79~80년도 간접투자 분야는 9.9%가 성장하고, 광공업분야는 18.9%가 성장을 했으나 동기간에 농업분야는 1.6%의 성장에 그쳐 이 수치만 가지고도 농·어민이 어려운 여건에서 악

전고투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으며 앞으로는 농·공병진 정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의견을 피력한다.

축산업의 안정된 발전에 대한 질문에 대해李위원장은 축산은 제2의 식량이라는 차원에서 그 관심도를 바꾸어야 하며 또현재 농수산부를 농축수산부로 이름을 고쳐 그 관심도를 높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한다. 그러기 위하여는 앞으로 국민 생활의 개선이 필요해 쌀중심의 생활관습에서 밀가루, 고기 등으로 유도해야 할 것이고 전체 축산인은 합심단결해 이 일에 앞장서야 한다고 말하며 특히 쇠고기의 편중된 소비에서 탈피하여 돼지고기와 닭고기 소비에도 정확한 인식이 제고되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동물성 단백질원으로서 영양 측면에서도 별 손색이 없는 돼지고기, 닭고기 소비문제에 언급하며 한의학에서 금기로 여기는 돼지고기, 닭고기도 이론상 부작용의 근거가 없어 그 이유를 한의학자에 물은 바 중국에서 의학이 처음 우리나라에 소개될 때 국민들이 너무도 굶주린 가운데 있어 값비싼 약을 지어주며 혹 설사나 하여 약효를 보지 못할 것을 염려해 돼지고기, 닭고기를 먹지 말라 한 것이 잘못 전해진 것으로 먹더라도 설사만 하지 않으면 된다는 얘기를 경희대 한의학자의 말을 빌어 소개한다.

또 농·축산물의 수요 공급의 안정에 대해 현재 농협이나 축협에서 수요·공급의 중간조절기능의 부재로 농·축산업 소득



△ 국회 농수산분과위원장 이범준 의원 집무광경

이 불안정한 것을 해소하기 위해 농수산부 장관과 협의를 할 예정이며 국회 농수산분과 위원회는 농업, 축산업, 수산업 종사자들의 가장 가까운 대변기관으로 범 국가적인차원에서 입안 정책에 반영하고 또 완충작용을 충실히 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힌다.

또 11대 국회의원의 자세는 잘못된 지식의 소견에서 탈피, 올바른 논리의 정립을 위해 소속분야의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고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 국민과의 대화를 언제 어느 장소에서든지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것이며 필요로 하여 서면질의 또는 직접 방문을 해보는 경우 발전지향적으로 성의껏 답해줄 예정이란다.

또 국회농수산위원회는 가까운 시일내에 축산인의 권익보호를 위해 현 실정을 깊이 이해하고자 축협중앙회와 함께 각 생산자 단체장들을 국회로 초청해 광범위한 주제를 가지고 간담회를 계획하고 있다고 한다. 차제

에 우리의 대변자인 국회 농수산분과위원들의 능동적인 노력으로 축산인 뿐 아니라 전체 농민의 정확한 의사를 전달, 정책에 반영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좋은 계기가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끝으로 소신을 묻는 기자에게李위원장은「정치, 경제, 안보는 대등한 입장에서 삼위일체가 되어야 하는데 그중 정치를 인체의 두뇌를 포함한 안면이라고 한다면, 안보는 수족(주먹)에 비교할 수 있으며, 경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오장육부라 할 수 있다. 외관상 안면과 수족은 볼 수 있어 외부로부터 많은 관심의 대상이 되나 오장육부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여 소홀히 다루는 경우 그야말로 생명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수 있는 것과 같이 이 세가지가 동등한 입장에서 올바르게 유지될때 우리 몸은 물론 국가의 안정적 발전이 가능한 만큼 정치, 경제 안보가 함께 대등하게 발전해야 한다」며 힘을 주어 강조한다.

(南斗熙)